일 주 문



동아시아 도자기 특강

원행 중앙승가대 총장 스님은 11월 21일 중앙승가대 본관 4층 대강당서 학인 · 시민 대상으로 '동아시아의 도자기' 주제 특강을 했다.



제48회 군승의날 기념식

정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11월 3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국방컨벤션서 '제48주년 군승의날 기념식'을 봉행한다.



불교문화관 · 일주문 낙성

진각 합천 연호사 주지 스님은 11월 20일 경내서 '연호사 불교문화관 전수관 및 일주문 낙성식'을 봉행했다.



행복바라미 확산캠페인

이기흥 (사)날마다좋은날 이사장은 11월 18일부터 전국 300개 사찰에 모금함을 보내 행복바라미 확산 캠페인 모금을 실시한다.



대불련총동문회 송년의 밤

백효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은 12월 25일 오후 4시 공군회관 사파이어홀서 '2016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보조전서〉 한글판, 완성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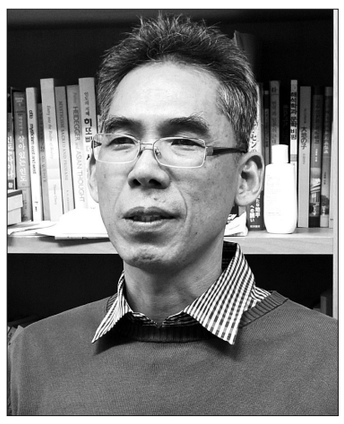
Interview

보조사상연구원 신임원장
김호성 교수

"지금 학교 일뿐만 아니라 한국불교학회 편집위원장도 맡고 있어서 보조사상연구원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추천해주셔서 마음을 냈습니다. 30년의 보조사상연구원이 향후 30년을 위해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겠습니다."

보조사상연구원 신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성 동국대 교수〈사진〉는 원장 선출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보조사상연구원은 11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원장으로 김 교수를 선출했다. 초대회장 故 법정 스님 이후 거의 모든 기간을 원장 소임을 맡았던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의 뒤를 이어받은 것이다.

사찰 최초 전문 학술연구원인 보조사상연구원이 30년 동안 쉬지 않고 월례발표회와 국내 · 국제 학술대회를 열 수 있던 것은 송광사의 지원과 법산 스님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이를 계승하는 김 교수는 "부담감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보조사상연구원 발전과 보조사상 선양을 위한 여러 계획들을 내놨다.



〈보조전서〉 번역 · 워크숍 등 계획
보조사상 대중화 위한 강좌 추진
院 체질 개선… 발전 기틀 마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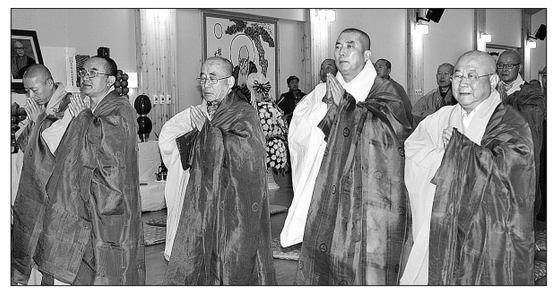
가장 우선적으로 꼽은 계획은 연구원이 1989년 발간한 〈보조전서〉에 대한 한글 번역본 사업이다. 〈보조전서〉는 김 교수에게도 인연이 깊다. 1987년 연구원 개원 당시 간사로 활동했던 김 교수는 〈보조전서〉 발간 사업에 참여했다.

"〈보조전서〉 발간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이를 통해 불교를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보조전서〉 초역된 것이 있었는데 전문적 교감이 이뤄졌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화엄론 절요〉를 시작으로 다시 텍스트를 점검하고 번역하는 사업을 하려 합니다." 김 교수는 연구원 회원들의 발표 기회를 늘리기 위해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다.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연구 주제를 정해 워크숍을 하 · 동계에 송광사에서 열겠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그간 회원 자유주제의 월례발표와 연 1회 국내 학술대회, 2년 1회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관심주제를 지정한 하 · 동계 워크숍을 개최해 회원들의 발표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원효 탄신 1400주년과 연구원 30주년 등 시기에 맞는 학술대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원 운영 시스템도 변화시킬 계획이다. 총무간사와 편집간사 체제를 정립하고, 학회비에 대한 변화도 구상하고 있다. 보조 지눌 스님의 사상 선양이라는 연구원 취지에 맞는 대중 강좌도 계획 중이다. "연구원이 발전하려면 최소한의 수익 순환이 있어야 합니다. 학회비의 변화는 필요하고, 후원 체계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간 연구원 대중강좌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보조 사상 대중화를 위한 '보조학당'을 만들어서 불자와 시민들이 강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곡당 17주기 추모다례재

11월 21일 사부대중 300여명 참석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1월 21일 경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서 동곡당 일타 스님 17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주지 돈관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일타 스님의 행적에 이어 "마음 따라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지니 마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육성법문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주불교사암련 공식 출범

회장에 선학원 관음사 주지 원명 스님



영주불교사암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는 11월 22일 (재)선학원 관음사서 창립총회를 열고, 회장에 관음사 주지 원명 스님을 선출했다. 아울러 정관을 심의 · 통과시켜 연합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회원스님들은 결의문을 통해 "위법망구의 각오로 영주불교사암연합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제주 약천사, BBS동요제 대상

박선은 양, 성원 스님 작사곡 불러



제주 약천사(주지 성원)가 11월 19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서 열린 BBS불교방송 '제7회 어린이 · 청소년 창작 찬불동요제'서 대상을 수상했다. 박선은(초5) 양은 주지 성원 스님이 작사한 '혼자 있을 때'를 불러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희 기자



소원정사, '제13회 연꽃상' 시상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는 11월 20일 법당서 '제13회 연꽃향기 자비나눔 및 연꽃상 시상식'을 봉행했다.〈사진 위〉 연꽃상은 신도들이 1년간 가정과 사찰서 사경, 사불을 해 제출한 것을 심사해 격려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 최순덕 불자를 비롯해 최우수상 · 우수상 각 1명, 장려상 3명, 봉사상 등 7명의 불자들이 상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최순덕 불자는 "매일 츰부다라니 사경과 지장보살 사불을 하며 기도했다. 기도한 덕분에 마음 편안한 한 해를 보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원정사는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쌀 나눔도 함께했다. 나눔에는 신도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모은 쌀 7400kg(1300만원 상당)을 빛고을나눔나무, 남구청 사회복지관, 대해노인복지센터, 서구청 등에 전달했다.

주지 도계 스님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모두 부처님이므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성불자 네트워크 확대 나서자"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6주년 및 원장 이취임식

(사)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창립 16주년 및 불교여성개발원장 ·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제9대 원장으로 취임한 노숙령 중앙대 명예교수는 취임사를 통해 "각 부처가 지금까지 닦아온 정보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층 더 알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여성불자 네트워크 활성화와 불교문화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년간 불교여성개발원을 이끌어온 박순 제8대 원장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으며, 각 지원장과 센터장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김혁수(20) 씨를 비롯한 대학생불자 3명에게 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그간 수고하신 전임 원장님들을 비롯한 여성불자들이 불교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단 초월해 수행자로 바로 살겠다"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 '해인승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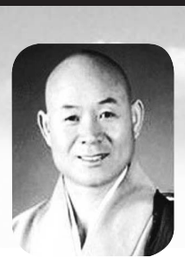


"조계종서 타종단으로 이적한 졸업생 중 해인승가상을 받은 스님은 흔치 않은 것으로 압니다. 종단을 초월해 수행자로서 열심히 살라는 경책으로 알겠습니다." 태고종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사진 위 오른쪽〉이 2016 해인승가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는 11월 21일 해인사 관음전서 열린 정기총회서 해인승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법진 스님에게 수여된 해인승가상은 해인승가대학을 빛낸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진 스님은 "동창회원들 중에 유일하게 홍가사를 수하고 총회에 참석하는 저를 한 번도 편애하지 않는 모습을 그동안 지켜보면서 해인승가대학이야말로 겉모습에 차별을 두지 않는 한국불교 최고의 승가대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법진 스님은 태고종 중앙종회의원과 종무원장 등을 두루 거친 중진이다. 한편 법진 스님은 이번에 상금으로 수여받은 100만원을 장학회장 보광 스님에게 장학발전 기금으로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12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